

“단청과 민요가 만나 흥 깨우네”

단청장 이정오 · 경기민요 이수자 방인숙씨 위한 ‘단청 · 소리 후원의 밤’ 성황

단청과 음악이 만나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보유자 이정오씨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방인숙씨를 위한 ‘무형문화재 단청 소리 후원의 밤’(후원회장 손기섭)이 7월 7일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에서 열렸다. 이 특별한 공연에 참석한 300여 사부대중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흥겨운 민요가락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정오 단청장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보유자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고 대전시 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대전시청 앞 한밭중각 단청을 시공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방인숙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세계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고 대전광역시 호 흥보



7월 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단청 · 소리 후원의 밤’에서 인사말하는 이정오 단청장(오른쪽)과 방인숙 경기민요 이수자.

대사 등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방인숙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세계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고 대전광역시 호 흥보

으로는 이시찬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회 회장, 김익중 중부경찰서장, 임삼덕 아주성형외과 원장, 최기석 학림사 조실 한임대원 스님을 비롯한 대전 지방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후원회 고문단

민요한마당 디너쇼에는 방인숙씨의 스승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보유자 이은주 선생이 노구를 이끌고 직접 출연해 제자 방인숙, 한진자씨와 함께 아주 귀한 시간을 선사했다. 대한제국 황순 이석을 비롯해 송선원, 진요근, 지은혜, 수진 등이 참여했으며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손기섭 후원회장은 “이 시대에 오여되지 않고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후원회가 되겠다. 무형문화재 단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후원회를 계기로 단청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오 단청장과 방인숙 경기민요 이수자는 “더욱 정성스럽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수륙재가 새로운 도약 계기 되기를”

대전 비구니 청림회 태안서 ‘불우이웃돕기 수륙대재’ 봉행

기축년 윤달을 맞은 7월 4일, ‘국운운창 불우이웃돕기 합동 수륙대재’가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호경) 주최로 태안 안면도 기지포 해수욕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수륙대재에는 수덕사 주지 웅산 스님과 진태구 태안군수, 청림회 회원 스님들과 20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수륙대재 1부로 진행된 법회는 회장 호경 스님의 인사말, 진태구 태안군수 환영사, 수덕사 주지 웅산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림회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수덕사 공양미 전달식도 열렸다.

호경 스님(법호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화합하지 못할 때 수륙대재를 국운운창을 위해 왕궁으로부터 도모해왔다”며 “오늘의 행사를 통해 우리 대전과 충남 그리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태구 태안군수도 “태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그 어려운 재앙을 잘 이겨낼



7월 4일 태안 해변에서 봉행된 수륙대재에 참석한 불자들이 국운운창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복구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웅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저 바닷물이 짠 짠은 알지만 눈으로 보지는 알 수가 없다. 불법의 진리도 이와 같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꼭 말을 해서 법이 아니라 저 바다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다고 느끼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법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굴을 확

퍼고 사는 평상심(平常心)이 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부에는 수륙재 의식이 봉행됐다. 수륙재는 시련, 대령산중작법, 북청계, 도랑계(막바라, 사방유신), 법고, 거불상단, 사다라니, 축원, 살풀이, 영단, 회심곡, 봉송내전의 순서로 봉행됐다. 이날 참가한 21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회향후 향토문화 체험과 수덕사 참배 등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실버밴드 창단공연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국)은 2009년 4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어르신들로 구성된 7인조 실버밴드(드럼, 키보드,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아코디언 등)를 결성,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3층 강당에서 창단 기념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은 박성호 대전시장, 가산 서구청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남선밴드와 함께 5명의 지역 가수 초청 공연도 펼쳐진다.

이 밴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9988 민속극단 열쭉’과 함께 지역사회 노인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장국 스님은 “어버이날 첫 선을 보이고 반응이 너무 좋아 창단 기념 공연을 열게 됐다”며 “향후 복지시설 위문공연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 실버가자단 주최로 발행한 ‘남선무지개’ 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7월 10일 자축행사를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인삼 맛보고 사찰순례도 하고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 대표

회사를 홍보하고 자사제품을 알리기 위해 고객을 공장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까?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 대표(사진)는 불자들에게서 이 화두를 풀었다. 삼사순례와 방법법회를 겸한 회사 견학을 통해 금산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간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에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버스를 전국의 사찰에 무료로 제공하고 금산 지역 인근의 사찰과 방생장소를 포함하는 코스를 안내한다. 상품 판매 목적의 ‘상술’이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신국주 대표는 단호하게 말한다. “막대한 홍보비를 버스 지원으로 활용할 뿐이고 입소문을 통해 우리 법인의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또 “신뢰받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대, 한서대, 경희대의 산학협력 체결로 새로운 신제품



혜철 충청지사장

을 개발하고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과 법인의 개발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금산인삼의 효능을 밝히고 수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어릴 적 꿈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었다는 신국주 대표는 “인삼 수확철에는 소비자가 직접 인삼밭을 방문해 수확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사지삼층석탑

낙뢰로 옥개석 훼손

대구시유형문화재 제42호 대전사지삼층석탑이 낙뢰로 훼손됐다.

대구 달성군(군수 이종진)에 따르면, 7월 2일 오후 달성군 유가면 용봉리 비슬산 내 대전사지 삼층석탑에 벼락이 쳐서 2층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달성군 문화재팀 김재국 학예연구사는 “예 산이 확보 되는 대로 수습해 보관 중인 훼손된 탑 부재를 수리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사지 삼층석탑은 고려 전기 때 조성된 탑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대전사(大見寺) 절터에 흩어져 있던 탑 부재들을 모아 1985년 조립해 복원했는데, 절벽의 높은 바위를 바둑돌로 삼아 그 위에 기단과 탑신을 올려놓은 것이 특징이다. **김성우 기자**

대장경 천년문화축전 연다

2011년 9월 23일~11월 6일 해인사 등지서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의 개최시기와 행사 규모 등이 확정됐다.

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대장경 천년문화축전을 2011년 9월 23일~11월 6일 45일간 합천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 창원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기로 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사업비는 당초 450억원 정도로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 등의 과정에서 시설비가 과다하는 등의 지적을 받아 306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해인사에서 5km 떨어진 합천군 가야면 아천리 각사마을 일원의 주행사장에 주제관인 대장경 천년기념관 영구건물로 지어진다. 대신 전 시관인 지식혁명관과 불교문화관은 기존 건물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제관은 대장경의 첫 만남과 대장경 실물실, 체험실 등으로 이뤄진다. 지식혁명관에는 문자·인쇄 혁명실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전, 아날로그·디지털 혁명실, 백남준 비디오아트 전시, 인지과학 혁명실 등이 들어선다.

불교문화관은 불교인명전과 해인사 박물관, 예술불교실, 신앙·생활 불교실 등으로 이뤄진다. 주제·전시관 외에도 강화도-서울-해인사 에 이르는 대장경 이운(移運)행사, 국제심포지엄, 세계불교대회, 불교패션쇼, 사찰요리와 차 문화, 불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경남도는 이날 중에 관련 조례가 승인되는대로 8월중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에 나서 실행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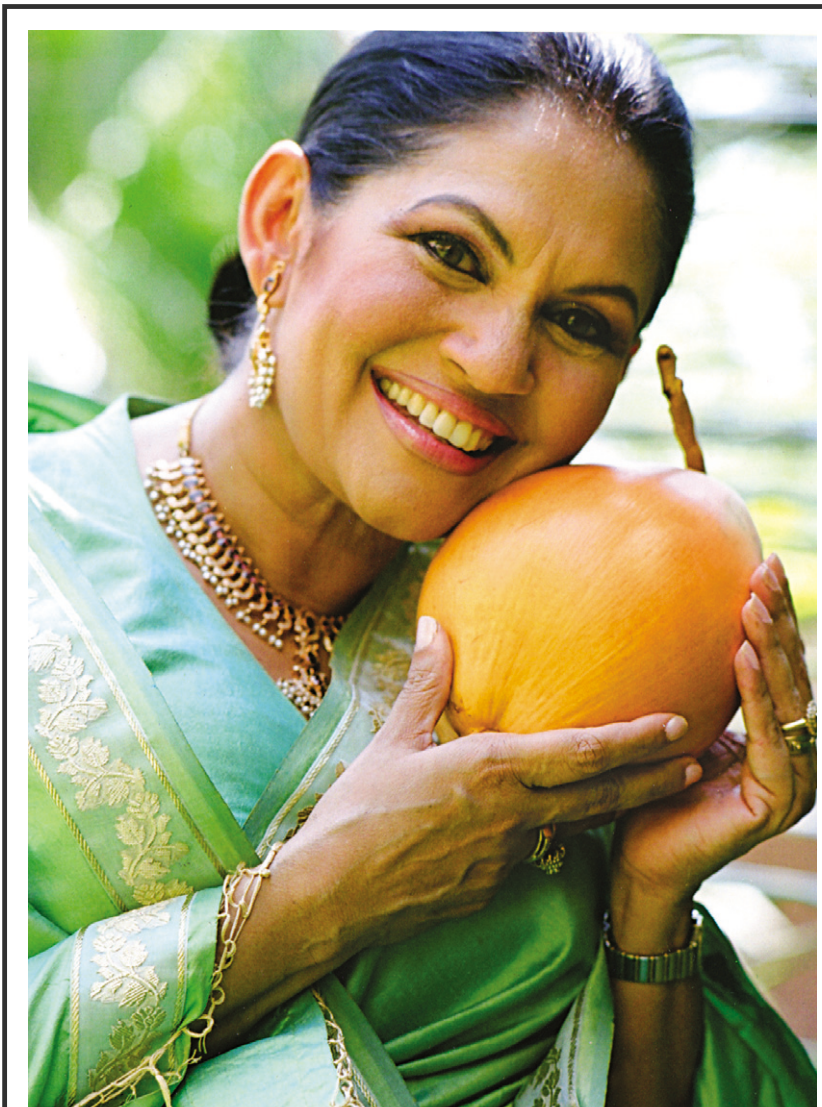
교사 불교연수회

7월 31일~8월 2일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호영)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제39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 불교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예불, 참선, 정호영 한국불교연구원장의 ‘종교·철학·불교’ 강의와 이주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불교미술로 본 보살’ 강의, 변신을 위한 워크숍, 108기도 정진 및 <만야심경> 사경, 화상식 등으로 진행된다. 7월 24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 80명을 선착순 모집, 참가비는 3만원. (02)762-5624 **김성우 기자**



前 세계 '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닷물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 필 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